



■ 해외동향

日本 관서전력, 한국산 전력기자재 구매 확대계획

KOTRA가 연간 12억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전력기자재 수입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 일본 관서전력의 실무 구매담당자 및 관련 공급업체 구매책임자를 초청, 지난 7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한 전력기자재 구매상담회에서 2억엔의 상담실적을 거두었다.

구매상담회에는 '99 서울국제종합전기기전('99년 10월 5~8일) 참가업체를 중심으로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회원사, 한국전력 공급업체 등 전력기자재 생산업체 45개사가 참가했다.

일본이 전기사업법 개정('95년)에 의한 경쟁원리 도입을 통해 2001년까지 전기요금 20% 인하를 발표('97년)함에 따라 원가절감을 위한 해외조달 확대 방침을 정하게 됐고, 이에 따라 일본의 전력회사들도 자재조달의 기본자세를 품질중시에서 가격중시, 국내조달에서 글로벌 조달로 전환하게 됐으며, '99년도 385억달러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 중 상당부분을 해외조달에 의존하고 있다.

관서전력에 의하면 범용기자재의 경우 한국산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며, 해외조달 총액의 10%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2000년 3월부터 전력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바뀌는 일본 전력회사(총 10개사)의 해외조달 규모는 연간 총 12억달러 규모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1억5천만달러를 차지하는 관서전력은 지금까지 대부분을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

으며, 한국으로부터는 케이블과 전선 등 일부 품목만을 구입해 왔다.

유키오 가와사키 관서전력 구매과장은 관서전력이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전력기자재는 약 3억5천만엔으로 금년에는 작년의 2배인 약 7억엔 정도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배경은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운데 따른 수송비 절감과 함께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전력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전력기자재 생산업체들은 설계 응용분야에 대한 투자와 세계표준에 맞는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구매상담회 전반에 걸친 특기사항 및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관서전력은 지금까지 한국의 전력기자재 생산업체로 현대, LG, 효성, 한국중공업 등 대기업외에는 거의 알지 못했으나 이번 구매상담회 및 '99서울국제종합전기기전 전시회에 출품한 전시품을 통해 한국에도 매우 우수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전력기자재 생산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혼장 인식.
- 한국업체의 2회의 방일 전력기자재 시장개척 단과 상당한 경험이 있지만 배전부문의 設置抵抗低減材 및 폐자재를 이용한 통신·전력케

- 이블용 드럼 등 관서전력 국제조달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품목중에서도 구매에 흥미를 느끼는 우수한 품질의 새로운 품목들이 포함.
- 전선과 같이 일본과 한국의 규격이 같은 품목은 규격 및 기술상 문제가 없어 가격만 절충하면 되지만 품목에 따라서는 일본과 한국의 규격이 상이하고 또한 품질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까지 많은 시일 소요가 예상.
 - 변압기 등 많은 부문에서 일본과 한국의 규격이 상이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서전력측에서 일본의 규격 및 기술사양을 제시하고 제작가능 여부 및 가격에 대한 견적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우리업체의 조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함.

또한 관서전력 구매단장인 와타루 기누가와전무 및 실무단은 한국전력을 방문해 관서전력의 현 상황과 발전구조 및 LNG 도입, 관서전력의 외국산 전력기자재 도입, 전선류 등 한국산 전력기자재 사양 상호 비교, 기타 배전자재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향후 한국으로부터 전력기자재 구입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우리가 일본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증·승인사항, 납품기준, 까다로운 등록문제등이 있지만 일단 공급처로 결정되면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수출확보 메리트 때문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전력기자재시장 진출을 위한 장기전략을 수립, 일본 전력회사와의 관계유지, 심화에 모든 힘을 기울여온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전력회사들이 코스트다운을 위해 해외조달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이들 업계는 여전히 보수적 성향이 강하므로 해외조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전력회사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의 유일한 전력회사인 한국전력 납품실적 제시로 판단되므로 '한국전력' 납품업체 중심의 대일 수출기업의 선정이나 일본 전력회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조건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해외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기초로 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아울러 전력손실 최소화 또는 효율화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문의처 : 일본팀-신윤종 3460-7356)

중국, 광섬유통신시장 연간 20% 성장

최근 꾸이린에서 개최된 전국통신상품 추계전시교역회에서 최근 중국 광섬유통신시장이 매년 20%의 속도로 증가하며 이러한 고속 성장은 200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최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왔고

작년에는 통신 기초설비건설이 1500억 위안을 넘었다. 생산업체와 세관등 각 부분의 조사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국 광케이블 실제 설치량은 이미 120~150만 KM라고 한다. 광케이블 통신 상품 생산액은 150억 위안에 이른다.



내년 중국 광케이블 수요량은 600만KM에 달할 것이다.

광섬유, 광케이블 시장 상황을 보면 중국은 줄곧 광섬유가 심각히 부족했지만 광케이블 생산능력은 충분히 넘는 나라였다. 중국은 필요한 광섬유의 70% 이상을 수입해왔고 1997년 수입 광섬유 상품은 2억달러를 넘는다. 2년 뒤 중국산 광섬유 생

산 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1996년 투자 설립된 상하이 랑췬은 1997년까지 주문량이 100만KM를 초과하였고 작년에는 170만KM였다.

1993년 중국 광섬유 시장의 실제 가격은 30% 정도 높다. 1994년 중국 일부 업체가 대량 생산을 시작하여 가격도 인하되었다.

印, 대규모 水力發電 프로젝트 추진

인도 정부는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 지역에 2만MW 용량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 수력발전 분야에서는 사상 최대의 사업으로 화력발전공사, 수력발전공사 및 Neepco 등을 비롯한 인도 국내의 유력한 국영 및 민영 發電 업체들의 합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합작회사는 브라마푸트라수력발전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예정이고 설립자본금 규모는 약 46

억5천만달러이다.

최근에는 인도 정부 및 주요 전력분야 국영기업들이 자본금중의 일부씩을 맡아 투자해 운영하지만 공공부문의 참여비율을 계속 줄여 최종적으로는 정부 및 국영기업체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춤으로써 실제로 민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각종 금융기관 또는 민영전력회사 등의 참여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처 : 아주부-박강욱-3460-7324)

스페인, 전력시장 대외개방

스페인 정부는 최근 3개 외국인 전력회사에 스페인 전력시장에서의 영업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스위스의 Aare-Tessin Ag Fur Elektrizitat (Z. AAR), 영국의 Eastern Group PLC (TXU), 그리고 미국 Enron Corporation (ENE)의 자회사인 Enron Energie GmbH 회사가 스페인 국

내외로 전력을 수출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들 회사는 스페인의 전력풀에서 교역할 수 있으며 스페인의 전력회사와 전력을 교역할 수 있게 됐다.

스페인의 전력풀은 경쟁적인 현물시장으로서 지난해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페인 에너지장관은 이번 승인이 스페인 전력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은 유럽연합위원회가 요구한 일정보다 앞서 에너지시장 자유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스페인의 전력시장에 진출한 외국인 회사는 7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승

인된 3개 회사 이외의 다른 4개 회사는 벨기에의 전력회사인 Electrabel SA (B. ELE), 모로코의 Office National de l'Electricite, 포르투칼의 Rede Electrica Nacional 그리고 Electricite de France(F. EDF) 등이다.

